

한국에서의 빈곤의 세대간 이전*

이 상 은

(숭실대학교)

[요약]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1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의 부모와 자녀간의 빈곤의 세대간 이전의 정도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빈곤의 세대간 이행 분석표와 부모 빈곤의 자녀 성인기 빈곤에 대한 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부모빈곤은 자녀의 교육수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낮은 교육수준은 자녀의 성인기 빈곤 가능성을 현저하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의 분석결과 부모 빈곤은 자녀의 교육연수의 매개효과를 통하여 성인기 빈곤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매개효과는 집단별 및 코호트별 분석에서도 확인되었다. 집단별 분석에 있어서는 아들에 비해 딸의 경우, 농촌출신에 비해 도시출신의 경우, 그리고 젊은 코호트에 비해 50대의 경우 상대적으로 빈곤의 세대간 이전 정도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빈곤, 세대간 이전, 아동빈곤, 사회적 이동

1. 서론

우리가 그리는 이상적 사회의 모습 중의 하나는 모든 아동들에게 기회의 평등이 보장되고 아동들의 노력 정도에 따라 그들의 성인기의 경제적 지위가 결정되는 사회일 것이다. 반면, 가장 부정적인 사회의 모습 중의 하나는 부유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는 나중에 부유한 성인이 되고 가난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는 성인이 되어서도 가난하게 되는 즉 경제적 지위의 세습이 고착화된 사회일 것이다. 부모로부터 자녀에게로의 빈곤의 세대간 이전(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poverty)의 정도는 한 사회의 기회의 평등과 사회적 형평성의 정도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단면 중의 하나이다.

* 본 연구는 숭실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미국의 경우 빈곤의 세대간 이전에 대한 논의와 분석이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한편에서는 빈곤의 세대간 이전 현상에 대해 빈곤한 사람들의 잘못된 가치와 태도가 가족을 통해 자녀에게 이전되어 빈곤의 세대간 이전 현상이 발생한다고 하는 보수적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다른 한편에서는 빈곤가구에서 태어난 아동들의 경우 자원의 상대적 결핍으로 인적자본투자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성인이 되어서도 빈곤에 빠진다는 상대적으로 진보적 주장들이 제기되어 왔다. 어떠한 종류의 주장이든 미국에서 상당정도의 빈곤의 세대간 이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수용하는 듯하다. 또한 미국에서의 실증적 연구들도 상당정도의 빈곤의 세대간 이전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특히 흑인들과 현재의 만성빈곤자들 중에 부모세대의 빈곤이 자신의 성인기 빈곤으로 이전되는 빈곤의 세대간 이전이 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Hill and Ponza, 1983; Cocoran, 1995; Cocoran and Adams, 1997).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우 빈곤의 세대간 이전은 어느 정도인가? 우리나라의 경우 서구 국가들과는 달리 그동안의 급속한 경제성장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사회적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는 빈곤의 평등화 상태에 있었고, 그 결과 상대적으로 평등한 기반위에서 활발한 사회적 이동을 경험하면서 경제성장을 이루어온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우리 국민들의 부의 축적과 사교육 열풍 등으로 인하여 부모세대의 경제적 지위가 자녀세대에게도 그대로 이전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빈곤의 세대간 이전에 대한 연구는 거의 부재하였다. 최근에 김위정(2007)이 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빈곤의 세대간 이전 현상을 연구한 것이 전부인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만성빈곤과 단기빈곤의 차이 분석에 집중하여 부모의 빈곤이 자녀의 성인기 만성빈곤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단기빈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의 빈곤의 세대간 이전에 대한 새로운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부모빈곤(아동기빈곤)이 자녀의 성인기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둘째, 집단 및 코호트별로 빈곤의 세대간 이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아래 2장에서는 빈곤의 세대간 이전에 대한 이론적 설명들과 기존의 실증적 분석연구들을 검토해 본다. 3장에서는 연구방법 및 분석자료를 소개한다. 4장에서는 실증적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빈곤의 세대간 이전 정도에 대해 전체 표본에 있어서의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또한 집단별 및 코호트별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분석결과를 정리하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2. 문헌연구

1) 빈곤의 세대간 이전에 대한 기존의 이론적 설명들

부모의 빈곤이 어떻게 그 자녀의 성인기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동안 몇 가지의 이론적 설명

들이 제시되어 왔다.¹⁾ 첫째, 빈곤의 세대간 이전에 있어서 유전적 요인을 강조하는 설명이다. Herrnstein and Murray(1994)는 능력과 빈곤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간의 능력의 유전을 강조한다. 부모의 빈곤은 상당부분 부모의 능력의 미약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모의 미약한 능력이 그 자녀에게로 유전됨으로써 그 자녀 또한 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모의 IQ 또는 건강상의 문제가 그 자녀에게로 유전되어 부모와 그 자녀 세대간에 빈곤이 이전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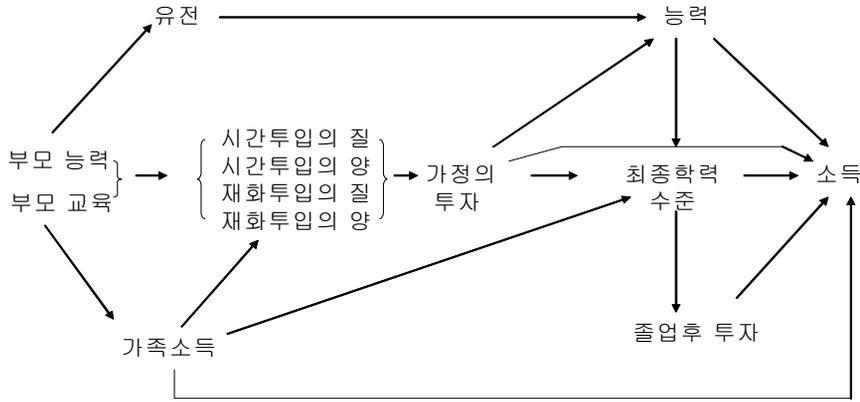
둘째, 인적자본투자의 논리이다. Becker(1967)와 Becker and Tomes(1986) 등은 한편에서는 부모와 자녀간에 이어지는 유전적 요인에 의한 선천적 능력(genetic endowment)의 영향을 인정하면서도, 부모의 소득수준 차이에 따른 자녀의 인적자본투자에서의 차이가 빈곤의 세대간 이전을 가져오는 주요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한 가구에서 부모는 자원의 사용에 있어서 현재의 소비와 자녀에 대한 인적자본투자 간에 일련의 선택을 해야 한다. 인적자본이 대출(borrowing)을 위한 담보로서 사용될 수 없는 시장에서, 아동 청소년기의 기술 습득은 부모의 소득에 의존하게 된다. 부모의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 부모는 아동의 인적자본 향상에 투자할 자원이 부족하여 아동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래서 빈곤가구 자녀들은 인적자본축적 수준이 낮고 그 결과 이들의 성인기 소득수준이 낮아져 빈곤의 세대간 이전이 발생하게 된다. Leibowitz(1974)는 Becker의 이러한 일반론적 모델에 기반하여 아동에 대한 인적자본투자의 과정을 그림으로 묘사하였다(Haveman and Wolfe, 1995: 1833. 에서 재인용). <그림 1>은 부모 능력의 유전적 계승과 부모 소득수준에 따른 인적자본투자에서의 차이를 통해 그 자녀의 소득수준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과정을 잘 묘사하고 있다.

셋째, 사회화 및 역할모델에 의한 설명이다. 세대간 빈곤의 전이를 사회화 및 역할모델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입장으로 크게 빈곤문화론(the culture of poverty model), 복지문화론(welfare culture model), 그리고 하위계급론(the underclass model)의 세 가지의 논리를 들 수 있다. 이 세 가지 이론들은 모두 가족 및 지역에서의 빈곤문화의 사회화 및 역할모델 부재에 따른 빈곤의 세습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먼저 빈곤문화론은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유행했던 모델이다(Lewis, 1968). 이 모델에 따르면 주류사회로부터 단절된 빈곤한 지역사회의 경우 주류 문화와 다른 그들만의 문화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 빈곤문화는 빈곤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빈곤탈출을 저해하고 이들로 하여금 빈곤함정(poverty trap)에 빠지게 한다. 그런데 이 빈곤문화는 일단 형성되면 가족을 중심으로 부모로부터 자녀에게로 전수되어 영속하게 된다. 이러한 빈곤문화의 전수에 의해 빈곤의 세대간 이전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복지문화론은 Mead(1986, 1994)에 의해 1980년대 이후 주장된 모델로서 빈곤문화의 형성과 전수에 있어서의 정부의 복지제도(welfare system)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빈곤지역의 경우 이미 빈곤문화에 젖어 있다. 그런데 부모와 그 지역사회가 대부분 정부 복지급여를 받아 생활하는 경우, 복지수급에 대한 스티그마가 감소되고 복지의존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정부의 복지제도는 빈곤지역의 빈곤문화를 더욱 강화하고 조장하게 되어 빈곤의 세대간 세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1) 이러한 입장에 대한 좋은 검토논문(review paper)으로 Haveman and Wolfe(1995)와 Cocoran(1995) 등을 참조하시오.

아동에 대한 가정의 투자



*Haveman and Wolfe(1995)가 Leibowitz(1974)를 부분적으로 수정한 그림.

<그림 1> 인적자본투자를 통한 세대간 소득수준의 이전

마지막으로 하위계급론(underclass model)은 대도시 빈곤지역(inner city)에서의 빈곤의 세습화 문제에 대해 그 사회구조적 원인과 함께 역할모델 부재에 따른 부적절한 사회화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Wilson(1987)의 하위계급 모델에 따르면 과거 대도시 지역에서 제조업 부문의 양질의 일자리들이 존재했고 이를 중심으로 상당수의 중산층 흑인 성인들이 청소년들에게 근로와 가족책임 등의 역할모델을 제공함으로써 빈곤탈출과 중산층으로의 상승 이동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대도시 중심부에 있던 제조업 부문 일자리들이 없어짐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가 상실되었고 중산층 흑인들이 교외로 이주함에 따라 빈곤지역 청소년들에 대한 역할모델이 상실되었다. 그 결과 대도시 빈곤지역(inner city)에서는 사회주류의 규범에(근로와 가족책임 등) 배치되는 부적절한 사회화가 이루어져 빈곤의 세습화와 하위계급 형성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빈곤의 세대간 이전을 설명하는 이론적 모델들은 각각 부모능력의 유전, 아동에 대한 인적자본투자 결핍, 그리고 부적절한 사회화 및 역할모델을 통하여 빈곤한 부모에게서 자란 자녀가 나중에 다시 빈곤한 부모가 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2) 빈곤의 세대간 이전에 대한 실증연구들

빈곤의 세대간 이전에 대한 실증연구들은 상대적으로 최근인 1980년대 이후에 주로 나타났다. 빈곤의 세대간 이전에 대한 실증연구들의 뿌리는 빈곤에 대한 분석의 범위를 넘어서서 보다 광범위한 경

제적 지위의 세대간 이전에 대한 연구들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보다 광범위한 경제적 지위의 세습에 대한 연구로부터 점차 보다 좁은 빈곤의 세대간 이전 연구로 발전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직업적 지위의 세대간 이전에 대한 연구들이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부모와 자녀 세대간의 소득수준의 상관관계를 검토하는 연구들이 나타났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간의 빈곤의 세대간 이전에 대한 연구들이 나타났다. 이러한 세단계의 연구진행 과정은 그 출현의 시기 측면에서는 순차적으로 발생한 부분이 있으나 그 과정이 단절적이기 보다는 현재까지 동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먼저 직업적 지위의 세대간 이전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사회학의 사회계층이동 연구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1920년대 이후 아버지의 직업과 아들의 직업의 관계를 교차분석(cross-tabulation)하는 직업 이동 표(occupational mobility table)를 작성하여 세대간 직업 지위의 이동 정도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나타났다(Haveman and Wolfe, 1995: 1840). 그 후 1960년대 이래 본격적으로 아버지의 직업적 지위가 아들의 직업적 지위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이 시작되었다. 대표적인 연구가 Blau and Duncan(1967)의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Duncan의 직업지위 지수(Duncan Index of occupational prestige)를 이용하여 아버지의 직업지위가 아들의 학력을 매개로 하여 아들의 직업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의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이후 Jencks(1972)와 Hauser and Featherman(1977) 등 많은 연구들이 Blau and Duncan(1967)의 연구를 새로운 자료, 추가적인 가족 배경 변수, 그리고 더 많은 매개변수들로 확대하였다(Cocoran, 1995: 239).

다음으로 부모와 자녀간의 소득수준의 관계를 검토하는 연구들이 나타났다. 부모와 자녀간의 소득수준의 관계에 대한 초기연구들은 부모와 자녀의 소득간에 0.2 정도의 상관관계를 발견하였고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미국의 세대간 소득계층이동이 정상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결론내렸다(Sewell and Hauser, 1975; Behrman and Taubman, 1985). 그러나 Solon(1989) 등은 이들 초기 연구들이 비확률표본(nonrandom sample)과 생애소득의 대리변수로서 1년동안의 소득에 기반하여 추정함으로써 세대간 소득수준의 상관관계를 과소평가하였다고 비판하였다. 이러한 비판에 기반하여 이후의 연구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교정하면서 부모와 자녀의 소득의 상관관계를 추정하였다(Behrman and Taubman, 1990; Solon, 1992; Zimmerman, 1992; Peters, 1992). 그 결과 이들 연구들은 대체로 0.4-0.5 수준의 높은 상관관계를 얻었고, 이에 기반하여 미국에서 세대간에 소득계층이동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부모의 빈곤과 자녀 빈곤간의 관계를 검토하는 연구들이 나타났다. 세대간 빈곤의 이전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졌다(Jenkins and Siedler, 2007). 첫째, 아동기 빈곤여부와 성인기 빈곤여부간의 이행교차표(transition table)를 이용하여 빈곤의 세습되는 비율을 분석하였다. 즉 아동기에 빈곤가구에서 성장한 아동 중 성인기에 빈곤한 사람의 비중과 아동기에 비빈곤가구에서 성장한 아동 중 성인기에 빈곤한 사람의 비중을 비교한 연구들이다. Levy(1980)는 PSID 자료를 이용하여 1968-69년에 아동들의 빈곤상태와 나중에 1976년에 20대가 되었을 때의 빈곤상태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빈곤가구 아동 중 28% 그리고 비빈곤가구 아동 중 11%가 성인기에 빈곤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아동들의 성인기 연령이 대부분 20대 초반이어서 이들의 생애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Hill and Ponza(1983)는 역시 PSID 자료를 이용하여 1968년에 12-17세 아동들의 빈곤상태와 1981년에 이들이 25-30세가 되었을 때의 빈곤상태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아동기에 5분위 소득집단 중 가장 낮은 분위에 속했던 아동들의 43%가 그리고 나머지 상위 4개 분위들에 속했던 아동들의 13%가 성인기에 가장 낮은 소득분위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Cocoran(1995)은 PSID 자료를 이용하여 1968년에 7-15세 아동들이 1988년에 27-35세가 되었을 때의 빈곤상태를 흑인과 백인으로 나누어 각각 비교하였다. 그 결과 아동기에 빈곤했던 흑인 아동 중 24.9%가 성인기에 빈곤했던 반면 아동기에 빈곤하지 않았던 흑인 아동들의 경우 9.6%가 성인기에 빈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흑인과 백인간의 차이를 분석했는데 빈곤했던 흑인 아동 중 24.9%가 빈곤했던 반면, 빈곤했던 백인 아동들의 경우에는 9.3%만이 빈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세대간 빈곤 이행에 있어서 상당한 이동이 발생하고 있지만 아동기 빈곤을 경험한 아동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빈곤해 질 가능성이 더 높고 특히 흑인 아동들에 있어서 빈곤의 전이 문제가 더 강하게 발생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한편, Cocoran and Adams(1997)은 단기빈곤과 지속빈곤을 구분하여 빈곤 흑인 아동들의 경우 빈곤 백인 아동들에 비해 지속빈곤을 경험할 가능성이 2.5배만큼 더 크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Blanden and Gibbons(2006)은 영국에서 1970년대 중반에 16세였던 아동들의 빈곤상태와 이들이 이후 33세가 되었을 때의 빈곤상태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16세에 빈곤했던 아동의 19%가 33세에 빈곤했던 반면 16세에 빈곤하지 않았던 아동의 10%가 33세에 빈곤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이들은 1970년대 중반에 16세였던 동년배 집단(cohort)과 1980년대 중반에 16세였던 동년배 집단 간에 이후 각각 33세와 30세가 되었을 때의 빈곤 이행을 두 동년배 집단간에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아동기에 빈곤했던 아동들이 나중에 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1970년대에 16세였던 동년배 집단에 비해 1980년대에 16세였던 동년배 집단에서 더 높아졌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둘째, 빈곤의 세대간 이전에 대한 또 다른 연구경향들은 아동기 빈곤경험의 성인기 빈곤경험에 대한 순효과를 추정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다른 주요한 가족 배경 및 환경적 요인들의 영향을 통제하면서 아동기 빈곤경험의 성인기 빈곤경험에 대한 순효과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Corcoran and Adams(1997)은 다른 가족배경 변수들을 통제하였을 경우 아동기 빈곤과 성인기 빈곤의 관계가 40%만큼 감소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아동기 빈곤은 가족배경 변수들을 통제한 후에도 여전히 성인기의 빈곤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Blanden and Gibbons(2006)는 주요 가족배경 변수들을 통제한 후에 1970년대에 16세였던 동년배 집단에 있어서는 아동기 빈곤의 성인기 빈곤에 대한 영향이 사라졌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16세 동년배 집단의 경우에는 가족배경 변수들을 통제한 후에도 아동기 빈곤이 지속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은 빈곤의 세대간 이전에 대한 기존연구들은 아동기 빈곤을 경험한 아동들의 경우 성인기에 빈곤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주요 가족 배경을 통제한 후에도 아동기 빈곤 경험은 성인기 빈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빈곤의 세대간 이전에 대한 연구들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세대간 직업 및 계급 이동에 대한 연구들이 사회학 분야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온

정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위 및 계급 이동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들마저 아주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온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 초기연구로서 차중천(1991)은 아버지와 아들의 직업범주간의 상호연관성을 분석하였다. 직업범주를 정신근로자층, 육체노동자층, 그리고 농민의 세범주로 나누어 아버지와 아들의 직업적 지위의 계승 정도를 분석한 바 있다. 그 결과 세대간 직업범주 이동이 없는 경우가 42.3%, 그리고 이동한 경우가 57.7%로 상당한 이동이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신광영(1994)은 직업의 분류에 바탕하여 세대간의 계급의 이동정도를 분석하였다. 계급을 자본가계급, 신편부르주아지, 중간계급, 그리고 노동계급의 네 가지 계급으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신편부르주아지를 다시 도시 신편부르주아지와 농촌신편부르주아지로 구분하고, 중간계급을 다시 경영관리자계급과 전문기술자계급으로 구분하여 총 6개의 계급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간의 세대간 계급 이동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에서는 계급의 세습률이 아주 낮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방하남·김기현(2001)은 한국 노동패널 1차년도 자료에 Blau and Duncan(1967)의 분석모형을 적용하여 직업적 지위의 세대간 이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부친의 직업보다 부친의 학력이 본인의 학력을 거쳐 본인의 현재 직업지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이 한국에서의 그동안의 지위 및 계급 이동에 대한 연구들은 대체로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에 비하여 세대간 지위 이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 보다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 세대간 빈곤 이전에 대한 연구로서는 김위정(2007)의 연구 한편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위정(2007)은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세대간 빈곤의 이행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본인의 빈곤을 만성빈곤(8년중 5년 이상 중위소득 60% 이하), 단기빈곤(8년 중 1-5년 중위소득의 60% 이하), 그리고 비빈곤(8년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년도 없음)의 세범주로 구분하고, 부모의 빈곤상태를 빈곤, 차상위, 그리고 비빈곤의 세범주로 구분하여 세대간 빈곤 이행을 분석하였다.²⁾ 그 결과 부모의 빈곤은 자녀의 단기빈곤 경험 가능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만성빈곤 경험가능성은 높인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이라는 새로운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의 빈곤의 세대간 세습에 대한 새로운 추정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및 자료

1) 분석자료 및 주요변수들

우리나라에서의 빈곤의 세대간 이전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 1차년도 자료를 이용한다. 한국복지패널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패널조사로서 특히 농어가와 읍면지역을 포함하

2) 본인빈곤의 경우 5년 이상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 만성빈곤, 1-5년 동안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 단기빈곤, 그리고 중위소득의 60% 이하였던 해가 없으면 비빈곤으로 분류하였다. 부모빈곤의 경우 14세 때 가정형편이 평균보다 훨씬 낮았던 경우 빈곤으로, 평균보다 약간 낮았던 경우 차상위로, 그리고 평균수준 이상이었던 경우 비빈곤으로 구분하였다.

는 명실상부한 전국민 조사자료이다. 대표적인 전국적 조사자료인 통계청의 가계조사와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의 경우 농어가와 읍면지역을 제외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복지패널은 전국적 자료로서의 대표성이 매우 높다. 한국복지패널의 표본규모는 전국 7,000가구이다. 조사기준 시점은 조사항목 중 유량(flow)의 경우 2005년 1-12월의 1년 동안이고, 저장(stock)의 경우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내용을 조사하였다.³⁾ 이 자료는 표본에 포함된 성인 가구원들에 대해 현재의 상황뿐만 아니라 과거 아동기 동안의 성장환경에 대한 일련의 내용들을 조사하였다.

부모와 자녀의 세대간 빈곤 이전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부모의 빈곤과 자녀의 빈곤이다. 부모의 빈곤 상태는 기본적으로 아동기의 부모 소득과 가구원수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직접적 계산이 가능하다. 그런데 한국복지패널은 아동기의 부모 소득과 가구원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아 직접적으로 부모의 빈곤을 측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아동기(만 0-17세)의 가구의 경제적 생활상태에 대해 5점 척도(매우가난, 가난, 보통, 부유, 매우 부유)로 조사한 내용이 있다. 이 변수를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빈곤을 두 가지 경우로 정의한다. 하나는 “매우가난”했던 경우를 부모 빈곤으로 설정하고 나머지 경우를 부모 비빈곤 상태로 설정하는 것이다(부모 또는 아동기 빈곤1 변수). 다른 하나는 “매우가난”과 “가난”을 부모 빈곤으로 설정하고 나머지 경우를 부모 비빈곤 상태로 설정하는 것이다(부모 또는 아동기 빈곤2 변수).

자녀 빈곤은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가구소득과 가구원수로부터 직접적으로 계산될 수 있다. 빈곤의 측정을 위하여 두 가지의 정의를 이용한다. 첫째, 정부의 공식적인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을 가진 경우 빈곤상태로 정의한다(자녀의 성인기 빈곤1 변수). 둘째, 균등화된 소득이 표본에서 하위 35% 미만에 속한 경우 빈곤상태로 정의한다(자녀의 성인기 빈곤2 변수).⁴⁾ 균등화된 소득은 (가구소득/가구원수^{1/2})으로 계산하였다.

빈곤정의1(부모빈곤1, 자녀 성인기 빈곤1)의 경우 상대적으로 심각한 빈곤을 그리고 빈곤정의2(부모빈곤2와 자녀 성인기 빈곤2)는 상대적으로 포괄적인 저소득층 또는 서민층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부모빈곤과 자녀빈곤 변수들을 정의한 후 주요한 변수들은 아동기의 가족배경 변수들이다. 아동기의 가족배경 변수들로서 아동기 주성장지역, 아동기 부모님 사망 여부, 아동기 부모님 이혼여부, 생계 곤란으로 학업 중단 경험, 경제적 이유로 친척집에서 자란 경험, 부모로부터의 상속 및 증여 여부 등의 변수들이 이용되었다. 그리고 개인의 현재 성인기에서의 개인특성 변수들로 성, 연령, 장애여부, 만성질환여부, 혼인상태, 가구원수 등이 이용되었다. 아동기 가족배경 및 현재 성인기 개인 특성 변수들의 조작적 정의들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3) 한국복지패널의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사회복지연구소에서 공동으로 발간한 “2006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보고서”를 참조하십시오.

4) 자녀빈곤2를 소득하위 35% 미만으로 규정한 것은 부모빈곤2의 경우 그 분포가 35.4%로 나타나 두 빈곤변수의 전체 분포를 비슷하게 설정하려고 하는 의도에서였다.

<표 1> 부모빈곤, 자녀빈곤, 그리고 아동기 가족배경 변수들

	주요 변수들	조작적 정의
부모빈곤 (아동기 빈곤)	부모빈곤1 (절대적 빈곤)	1=아동기 경제적 상태가 “매우가난” 0=나머지 응답들
	부모빈곤2 (저소득층)	1=아동기 경제적 상태 “매우가난” 또는 “가난”. 0=나머지 응답들
	부모의 소득수준	1.매우가난, 2.가난, 3.보통, 4.부유, 5. 매우부유
자녀빈곤 (성인기 빈곤)	자녀빈곤1 (절대적 빈곤)	1=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 0=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
	자녀빈곤2 (저소득층)	1=균등화된 소득이 하위 35% 미만 0=균등화된 소득이 하위 35% 이상
	자녀의 소득수준	소득5분위 분류상의 분위(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아동기 가족배경	아동기 주성장지역	1.농어촌
	아동기 부모사망	1=사망
	아동기 부모이혼	1=이혼
	아동기 생계곤란으로 학업중단	1=학업중단 경험 있음.
	아동기 경제적이유로 친척집에서 자란 경험	1=경험있음.
	부모 상속 및 증여 여부	1=상속 및 증여 있음.
개인특성	성	0=여성, 1=남성
	연령	=만 연령(=2005-출생연도)
	학력	교육년수 -무학=0, 초졸=6, 중졸=9, 고졸=12, 전문대졸=14, 대졸=16, 대학원졸=18 - 재학 또는 중퇴의 경우 해당 교육과정의 중간 연수로 설정: (예) 고등학교 중퇴 10.5로 설정.
	장애여부	0=장애없음. 1=장애있음.
	만성질환여부	0=만성질환없음. 1=만성질환있음.
	혼인상태	0=배우자없음. 1=배우자있음.
	가구원수	가구원의 숫자

한국복지패널의 가구자료는 7,072가구를 포함하고 있고 개인자료는 14,469명의 개인에 대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자료에 가구자료의 정보들을 결합한 개인자료를 이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빈곤의 성인들의 빈곤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는 것이 주 목적이므로, 전체 개인 자료중에서 연령이 30세에서 59세 사이에 속한 사람들로 표본을 제한하였다. 그 결과 최종 개인자료에는 총 7,616명이 포함되었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 자녀간의 세대간 빈곤 이전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의 두 가지 분석방법을 사용한다. 첫째, 부모 빈곤(자녀의 아동기 빈곤)과 자녀의 성인기 빈곤간의 이행분석표(transition

matrix)를 분석한다. 아동기 빈곤 여부에 따라 성인기에 빈곤한 정도를 교차 분석해 봄으로써 세대간 빈곤 이전의 경향을 묘사해(describe)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부모 빈곤이 자녀 성인기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보기 위하여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한다. 종속변수는 자녀의 성인기 빈곤 상태이다. 독립변수는 부모의 빈곤 상태이다. 통제변수로 개인의 아동기 경험에 대한 변수들과 개인의 성인기 현재 특성 변수들이 통제변수로 포함된다.

또한 부모와 자녀간의 세대간 빈곤 이전의 정도를 평가함에 있어서 전체 표본에서의 평균적 경향 뿐만 아니라 주요 집단별로 또한 코호트별로 차이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그래서 성별로 아들과 딸 각각에 있어서 부모의 빈곤이 이전되는 정도가 어떠한지를 분석한다. 또한 지역별로 농촌 출신과 도시 출신간에 부모의 빈곤 이전 정도가 어떠한지를 비교해 본다. 그리고 코호트별로 50대, 40대, 30대들에 있어서 빈곤의 세대간 이전 정도를 비교해 본다.

4. 분석결과

1) 주요 변수들의 분포

<표 2>와 <표 3>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표본에서 주요 변수들의 분포를 보여준다. 아동기 빈곤의 정도를 보면 아동기의 가구의 경제적 상태 중 “매우 가난”한 경우만을 빈곤으로 정의한 아동기 빈곤1 변수의 경우 5.3%가 아동기 빈곤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기 경제적 상태를 “매우가난” 또는 “가난”으로 응답한 경우를 빈곤으로 정의한 아동기 빈곤2 변수의 경우 35.4%가 아동기 빈곤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성인기 빈곤 상태를 보면 최저생계비 미만의 성인기 빈곤1 변수의 경우 7.6%가 빈곤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인기 가구소득이 하위 35%미만인 경우로 설정한 성인기 빈곤2 변수의 경우 변수 설정에 의해 자동적으로 빈곤율은 35%로 나타났다.

아동기 가족배경 변수들의 경우 아동기에 농촌지역에서 성장한 경우가 전체의 약 50%로 나타났다. 아동기에 부모 사망을 경험한 사람들은 16.3%로 높게 나타났다. 아동기에 경제적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친척집에서 자란 경험을 가진 경우도 각각 9.6%와 2.6%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모로부터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들이 전체의 21.9%를 차지했다.

표본에 포함된 개인들의 특성을 보면 연령은 평균이 42.5세로 나타났고, 교육연수는 평균 12년으로 고졸 정도로 나타났으며, 남성이 49.7%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장애나 만성질환을 가진 경우가 각각 5.8%와 17.9%였다. 그리고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가 전체의 83.9%를 차지하였다. 가구원수는 평균 3.5명으로 나타났다.

<표 2> 주요 변수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변수	사례수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아동기 빈곤1(1=매우가난)	7529	0.053	11.281	0	1
아동기 빈곤2(1=매우가난 또는 가난)	7529	0.354	24.089	0	1
성인기 빈곤1(1=최저생계비미만)	7616	0.076	13.298	0	1
성인기 빈곤2(1=소득하위35%미만)	7616	0.350	23.991	0	1
아동기 성장지역(농어촌=1)	7533	0.503	25.191	0	1
아동기 부모사망경험	7533	0.163	18.597	0	1
아동기 부모이혼경험	7532	0.011	5.236	0	1
아동기 생계곤란으로 학업중단	7533	0.096	14.863	0	1
아동기 경제적 이유로 친척집에서 자란 경험	7532	0.026	7.996	0	1
부모로부터의 상속 및 증여 경험	7535	0.219	20.833	0	1
본인 연령	7616	42.499	418.238	30	59
본인 교육연수	7613	12.089	171.894	0	18
본인 성(남성=1)	7616	0.497	25.151	0	1
본인 장애(1=장애있음)	7616	0.058	11.768	0	1
본인 만성질환(1=있음)	7616	0.179	19.296	0	1
본인 기혼(1=배우자있음)	7616	0.839	18.503	0	1
가구원수	7616	3.545	56.893	1	9

주) 사례수는 가중치 비부여; 평균 및 표준편차는 가중치 부여된 값임.

<표 3> 주요 변수들의 빈도 및 백분율

변수		가중치 비부여		가중치 부여	
		도수	백분율	도수	백분율
아동기 경제수준	매우가난	479	6.4	1011535	5.3
	가난	2356	31.3	5748554	30.1
	보통	3804	50.5	10117635	53.0
	부유	829	11.0	2070578	10.8
	매우부유	61	0.8	159568	0.8
	계	7529	100.0	19107870	100.0
성인기 소득수준	소득1분위	2745	36.0	3848944	20.0
	소득2분위	1454	19.1	3852875	20.0
	소득3분위	1182	15.5	3852230	20.0
	소득4분위	1152	15.1	3845768	20.0
	소득5분위	1083	14.2	3869519	20.1
	계	7616	100.0	19269337	100.0
아동기 주성장지	대도시	2209	29.3	5696836	29.8
	중소도시	1301	17.3	3813362	20.0
	농어촌	4023	53.4	9608527	50.3
	계	7533	100.0	19118725	100.0

2) 부모와 자녀간의 세대간 빈곤 이행표 분석 결과

<표 4>는 아동기 빈곤과 자녀의 성인기 빈곤간의 이행(transition) 관계를 기술적으로 보여준다. 먼저 첫번째 패널은 아동기 빈곤정의1(매우가난)과 성인기 빈곤정의1(최저생계비 미만)간의 관계를 보여준다. 이 빈곤정의1은 상대적으로 심각한 빈곤 경험을 측정한다. 아동기에 심각한 빈곤을 경험하지 않았던 사람들 중 6.9%가 성인기에 빈곤에 빠지는 반면, 아동기에 심각한 빈곤을 경험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15%가 성인기에 빈곤에 빠진다. 즉 아동기에 빈곤을 경험한 사람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성인기 빈곤을 경험하는 비율이 약 8% 포인트 더 높다. 아동기에 빈곤했던 집단과 빈곤하지 않았던 집단간에 성인기에 빈곤한 비율의 차이를 t-검증해 본 결과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빈곤정의2에 따른 아동기 빈곤2(매우가난 또는 가난)와 성인기 빈곤2(소득하위 35% 미만)간의 관계를 살펴보자. 이 빈곤정의2에 따른 이행분석표는 저소득층 또는 서민층 지위의 이전 정도를 제시한다. <표 4>의 두 번째 패널에서 제시된 것처럼 비저소득층 아동과 저소득층 아동이 성인이 되어 저소득층에 속하는 경우는 각각 32.4%와 38.8%로 아동기에 저소득층이었던 아동이 성인이 되어 저소득층이 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기에 저소득층이었던 집단과 중산층이상 집단간에 성인기에 빈곤한 비율의 차이를 t-검증해 본 결과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두 집단간의 성인기 빈곤율의 절대적 값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들은 기본적으로 아동기에 빈곤가정에서 성장한 사람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성인기에 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으로 보여준다. 특히 상대적으로 심각한 빈곤의 경우(빈곤정의1)의 경우 빈곤의 세대간 이전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동기에 빈곤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성인기에 빈곤을 탈출한 경우도 높게 나타나(빈곤정의에 따라 각각 85%와 61.2%) 상당히 활발한 사회적 이동이 있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표 4> 부모와 자녀의 세대간 빈곤이행 분석표

		성인기 빈곤1			
		비빈곤	빈곤	계	t-value
아동기 빈곤1	비빈곤	93.1	6.9	100.0	-6.04***
	빈곤	85.0	15.0	100.0	
		성인기 빈곤2			
		비빈곤	빈곤	계	t-value
아동기 빈곤2	비빈곤	67.6	32.4	100.0	-5.59***
	빈곤	61.2	38.8	100.0	

<표 5> 부모와 자녀의 세대간 경제적 지위 이행 분석표

구분		자녀의 성인기 소득수준					계
		소득1분위	소득2분위	소득3분위	소득4분위	소득5분위	
부모 경제적 상태	매우가난	33.3	19.7	16.8	15.0	15.3	100.0
	가난	21.6	21.0	22.1	19.9	15.5	100.0
	보통	17.0	19.9	20.4	20.1	22.7	100.0
	부유	20.8	18.2	15.4	22.6	23.1	100.0
	매우부유	19.3	20.4	10.8	22.6	26.9	100.0

+ Chi-square 값=334907***

<표 5>는 아동기 경제상태와 자녀의 성인기 소득수준간의 관계를 보여준다. 아동기에 매우 가난했던 경우 성인기에 소득1분위에 속할 가능성이 33.3%로 아동기에 보다 나은 경제적 환경에서 성장한 사람들의 약 20% 수준보다 상당히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부모 소득지위와 자녀 소득지위간에 상당히 활발한 이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아동기에 가난했던 사람들의 15%가 성인이 되어 최상위 20%에 속하고 있으며, 아동기에 매우 부유했던 사람들의 19.3%가 최하위 20%에 속하고 있다. 즉, 아동기에 매우 가난했던 사람들의 경우 성인이 되어서 빈곤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으나, 한편으로는 상당히 활발한 세대간 소득지위 이동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 아동기 빈곤이 성인기 빈곤에 미치는 영향

<표 6>과 <표 7>은 빈곤정의1을 이용하여 아동기 빈곤(매우가난)이 성인기 빈곤(최저생계비 미만)에 미치는 영향을 로짓분석한 결과이다. <표 6>은 통제변수로서 개인의 성인기 현재 특성 변수들만을 포함한 것이고 <표 7>은 통제변수로 개인의 성인기 현재 특성 변수들뿐만 아니라 개인의 아동기 성장 환경변수들을 포함한 것이다.

<표 6>에서 첫 번째 모델은 개인의 현재의 성인기 특성 변수들을 모두 통제하면서 아동기 빈곤의 성인기 빈곤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그 결과 부모의 빈곤 즉 아동기에 빈곤 상태에서 성장한 것이 성인기에 빈곤에 빠질 가능성(즉 odds)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부모의 빈곤 여부보다는 통제변수들로 모델에 포함된 개인 특성 변수들인 교육수준, 장애 여부, 만성질환여부, 그리고 결혼상태가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첫 번째 모델의 분석결과는 우리나라에서는 빈곤의 세대간 이전 현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우리를 유도하는 듯하다.

그러나 인적자본투자론에 따르면 빈곤가구의 경우 아동에 대한 인적자본투자 부족으로 그 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 결국 빈곤을 탈출하지 못하는 빈곤의 세대간 이전이 발생된다고 한다. 즉, 아동기 빈곤은 인적자본투자 요인의 매개를 통하여 성인기 빈곤에 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본 로짓분석의 경우에도 인적자본투자 요인을 대표하는 교육연수(year of education) 변수가 성인기 빈곤에 상

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연수 1년 증가시 성인기 빈곤 가능성(odds)⁵⁾이 약 12%만큼 감소되는 것으로 그 영향정도가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 이는 교육연수 변수가 아동기 빈곤 변수의 성인기 빈곤에 대한 영향을 흡수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래서 두 번째 모델에서는 교육연수 변수를 제외한 후 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이제 아동기 빈곤은 성인기 빈곤 가능성을 약 45%만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세 번째 모델에서는 교육연수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OLS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빈곤가구에서 성장한 아동은 비빈곤가구에서 성장한 아동보다 교육연수가 2.26년만큼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6> 아동기 빈곤(매우 가난)의 자녀의 성인기 빈곤(최저생계비 미만)에 대한 영향: 아동기 환경 변수 비포함

	성인기 빈곤(최저생계비미만) 결정요인								교육수준 결정요인		
	(1) 교육연수 변수 포함				(2) 교육연수 변수 제외						
	coeff.	s.e.	p-value	odds ratio	coeff.	s.e.	p-value	odds ratio	coeff.	s.e.	p-value
상수	0.149	0.289	0.606		-2.231	0.188	<.0001		19.372	0.180	<.0001
아동기 빈곤 (매우가난)	0.094	0.124	0.449	1.098	0.378	0.118	0.001	1.459	-2.260	0.130	<.0001
성	-0.007	0.070	0.915	0.993	-0.157	0.067	0.020	0.854	1.268	0.060	<.0001
연령	0.000	0.005	0.934	1.000	0.025	0.004	<.0001	1.025	-0.186	0.000	<.0001
교육연수	-0.123	0.011	<.0001	0.884							
장애	0.969	0.105	<.0001	2.636	1.107	0.102	<.0001	3.025	-1.497	0.130	<.0001
만성질환	0.614	0.080	<.0001	1.848	0.695	0.079	<.0001	2.003	-0.958	0.090	<.0001
기혼	-0.962	0.074	<.0001	0.382	-1.048	0.073	<.0001	0.351			
	N=7526 LR=784.7***				N=7529 LR=656.9***				N=7526 R2=0.3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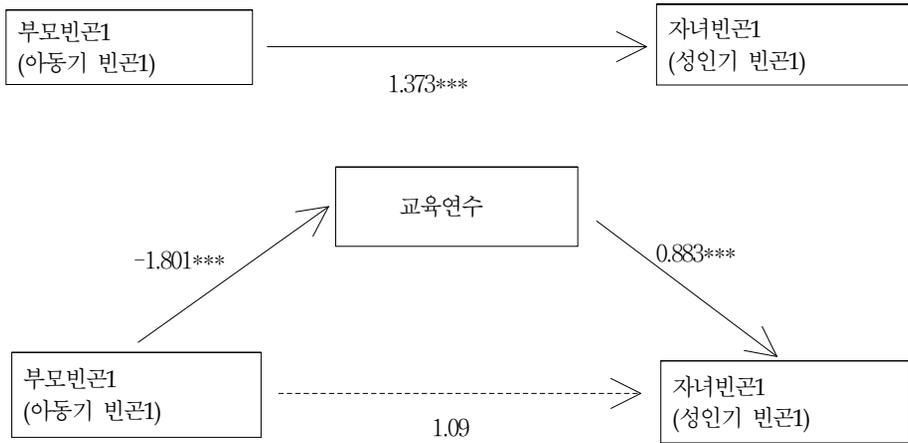
<표 7>에서는 <표 6>에서와 동일한 세 가지의 모형을 통제변수에 아동기 환경변수들을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표 6>에서의 거의 유사하였다. 첫 번째 모델에서 교육연수를 포함한 전체 통제 변수들을 넣어 로짓분석한 결과 아동기 빈곤은 성인기 빈곤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모델에서 교육연수를 제외한 후 로짓분석한 결과 아동기 빈곤은 성인기 빈곤 가능성을 37.3%만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세 번째 모델에서 교육연수 결정요인 회귀분석을 한 결과 아동기 빈곤은 교육연수를 약 1.8년만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본 논문의 로짓분석 결과에서 odds ratio 값의 해석에 있어서 “~할 가능성에 몇 % 영향을 준다”고 표현할 때 그 가능성은 확률이 아니라 odds를 의미한다.

<표 7> 아동기 빈곤(매우가난)의 자녀의 성인기 빈곤(최저생계비 미만)에 대한 영향: 아동기 환경 변수 포함

	성인기 빈곤(최저생계비미만) 결정요인								교육수준 결정요인		
	(1) 교육년수 변수 포함				(2) 교육년수 변수 제외						
	coeff.	s.e.	p-value	odds ratio	coeff.	s.e.	p-value	odds ratio	coeff.	s.e.	p-value
상수	0.132	0.296	0.656		-2.272	0.189	<.0001		19.252	0.170	.000
아동기 빈곤 (매우가난)	0.086	0.125	0.492	1.090	0.317	0.121	0.009	1.373	-1.801	0.130	.000
아동기 부모사망	-0.008	0.089	0.929	0.992	0.058	0.088	0.512	1.059	-0.533	0.080	.000
아동기 부모이혼	0.632	0.281	0.025	1.881	0.726	0.278	0.009	2.066	-0.906	0.310	0.005
아동기 친척집 생활	0.134	0.185	0.467	1.144	0.317	0.181	0.080	1.372	-1.438	0.200	<.0001
부모로부터 유산 및 증여	0.213	0.086	0.013	1.237	0.130	0.085	0.125	1.139	0.665	0.070	<.0001
농촌에서 성장	-0.019	0.073	0.791	0.981	0.177	0.069	0.011	1.193	-1.487	0.060	<.0001
성	-0.028	0.070	0.691	0.973	-0.173	0.068	0.011	0.841	1.214	0.060	<.0001
연령	0.000	0.005	0.985	1.000	0.023	0.004	<.0001	1.023	-0.165	0.000	<.0001
교육연수	-0.125	0.012	.000	0.883							
장애	0.977	0.105	.000	2.656	1.109	0.103	<.0001	3.030	-1.416	0.130	<.0001
만성질환	0.617	0.080	.000	1.854	0.690	0.079	<.0001	1.994	-0.893	0.080	<.0001
기혼	-0.978	0.076	.000	0.376	-1.071	0.074	<.0001	0.343			
	N=7517 LR=792.8***				N=7520 LR=672.8***				N=7517 R2=0.405		

이러한 <표 6>과 <표 7>에서의 세 가지 모델들의 분석결과는 아동기빈곤이 교육수준을 매개로 하여 성인기 빈곤을 결정한다는 교육수준의 매개효과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즉 아동기 빈곤은 성인기 빈곤에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교육수준을 통해 간접적으로 성인기 빈곤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그림 2>와 같다. 이러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빈곤한 부모의 경우 아동에 대한 교육투자가 부족하여 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 교육수준이 낮아 소득이 낮고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빈곤의 세대간 세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다.



주: 부모빈곤의 교육연수에 대한 영향을 표시하는 계수값은 회귀분석 계수이고, 나머지 계수값은 로짓분석에서의 odds ratio 값임. <표 7>의 분석결과를 그림으로 표시한 것임.

<그림 2> 교육연수의 매개효과

그러므로 빈곤의 세대간 이전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 모델에 교육연수를 포함하는 것은 부모빈곤(아동기빈곤)이 낮은 교육수준을 통하여 성인기 빈곤으로 이전되는 메커니즘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빈곤의 세대간 이전효과를 존재하지 않는다는 왜곡된 결론을 내리게 한다. 우리나라에서 빈곤의 세대간 이전 문제를 연구한 유일한 연구인 김위정(2007)의 경우에도 단기빈곤의 경우 빈곤의 세대간 이전 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김위정(2007)의 경우에도 분석모델에 교육수준 변수를 포함함으로써 실제로 존재하는 빈곤의 세대간 이전 효과를 잘 못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 8>과 <표 9>는 빈곤정의2를 이용하여 아동기 빈곤(매우가난 또는 가난)이 성인기 빈곤(소득 하위 35%미만)에 미치는 영향을 로짓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표 8>은 통제변수로서 개인의 성인기 현재 특성만을 포함한 것이고 <표 9>는 여기에 아동기 성장환경변수들을 추가한 것이다.

<표 8>과 <표 9>의 첫 번째 모델(교육연수변수 포함한 모델)에서 아동기 빈곤의 성인기 빈곤에 대한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그 방향이 아동기 빈곤이 성인기 빈곤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약 12%만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인 상식과 기존의 이론과도 배치되는 이상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수준 등 통제변수들이 종속변수의 변이(variation)를 너무 많이 흡수해 버렸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두 번째 모델에서는 교육연수 변수를 제외한 후 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아동기 빈곤은 성인기 빈곤 가능성을 각각 23%와 15%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상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 번째 모델에서 교육연수를 종속변수로 한 OLS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더니, 아동기 빈곤이 교육연수를 각각 약 1.7년 및 1.4년 만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표 8>과 <표 9>의 분석결과는 다시 한번 교육연수의 부모빈곤(아동기 빈곤)의 자녀빈곤(성인기빈곤)에 대한 매개효과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표 8> 아동기 빈곤2의 자녀 성인기 빈곤2에 대한 영향: 아동기 환경 변수 비포함

	성인기 빈곤(소득 하위35% 미만) 결정요인								교육수준 결정요인		
	(1) 교육년수 변수 포함				(2) 교육년수 변수 제외						
	coeff.	s.e.	p-value	odds ratio	coeff.	s.e.	p-value	odds ratio	coeff.	s.e.	p-value
상수	3.890	0.232	<.0001		-0.128	0.137	0.352		19.494	0.180	<.0001
아동기 빈곤	-0.127	0.055	0.020	0.881	0.211	0.051	<.0001	1.234	-1.716	0.060	<.0001
성	0.066	0.052	0.201	1.068	-0.211	0.049	<.0001	0.810	1.384	0.060	<.0001
연령	-0.022	0.004	<.0001	0.978	0.016	0.003	<.0001	1.016	-0.178	0.000	<.0001
교육연수	-0.213	0.010	<.0001	0.808							
장애	0.822	0.118	<.0001	2.276	1.016	0.113	<.0001	2.763	-1.536	0.130	<.0001
만성질환	0.501	0.070	<.0001	1.650	0.619	0.067	<.0001	1.857	-0.900	0.080	<.0001
기혼	-0.716	0.067	<.0001	0.489	-0.832	0.064	<.0001	0.435			
	N=7526 LR=1145.5***				N=7529 LR=601.3***				N=7526 R2=0.377		

<표 9> 아동기 빈곤2의 자녀의 성인기 빈곤2에 대한 영향: 아동기 환경 변수 포함

	성인기 빈곤(소득 하위 35% 미만) 결정요인								교육수준 결정요인		
	(1) 교육년수 변수 포함				(2) 교육년수 변수 제외						
	coeff.	s.e.	p-value	odds ratio	coeff.	s.e.	p-value	odds ratio	coeff.	s.e.	p-value
상수	3.897	0.237	<.0001		-0.110	0.138	0.425		19.374	0.170	<.0001
아동기 빈곤	-0.134	0.055	0.015	0.875	0.138	0.052	0.008	1.148	-1.371	0.060	<.0001
아동기 부모사망	0.101	0.069	0.144	1.106	0.187	0.067	0.005	1.205	-0.463	0.080	<.0001
아동기 부모이혼	0.336	0.251	0.181	1.400	0.495	0.245	0.043	1.641	-0.901	0.310	0.004
아동기 친척집 생활	0.152	0.170	0.370	1.165	0.380	0.161	0.018	1.462	-1.385	0.200	<.0001
부모 유산및 증여 여부	-0.028	0.062	0.649	0.972	-0.125	0.060	0.036	0.883	0.566	0.070	<.0001
농촌에서 성장	-0.073	0.053	0.172	0.930	0.210	0.050	<.0001	1.233	-1.356	0.060	<.0001
성	0.070	0.052	0.182	1.072	-0.198	0.049	<.0001	0.821	1.315	0.060	<.0001
연령	-0.021	0.004	<.0001	0.979	0.013	0.003	<.0001	1.013	-0.161	0.000	<.0001
교육연수	-0.214	0.010	<.0001	0.808							
장애	0.823	0.118	<.0001	2.278	1.005	0.113	<.0001	2.731	-1.457	0.120	<.0001
만성질환	0.493	0.070	<.0001	1.637	0.607	0.067	<.0001	1.834	-0.853	0.080	<.0001
기혼	-0.711	0.067	<.0001	0.491	-0.839	0.065	<.0001	0.432			
	N=7517 LR=1151.4***				N=7520 LR=645.6***				N=7517 R2=0.422		

부모빈곤이 자녀교육을 통하여 자녀빈곤으로 이전된다는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빈곤의 세대간 이전에 대한 이론적 모델들과 관련하여 인적자본투자론의 타당성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는 듯하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결과로부터 다른 모델들에 비교한 인적자본투자론의 상대적 적합성을 논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본 연구의 분석모델들은 빈곤의 세대간 이전에 대한 설명 모델들간의 상대적 적합성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 이론적 모델들간의 상대적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인적자본투자론 이외에 유전적 요인이나 사회화 요인을 강조하는 모델들을 테스트하기 위한 변수들이 모델들에 포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유전적 요인으로 부모의 IQ나 능력 등의 변수들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사회화 요인으로 아동기에 있어서의 부모의 공적부조 수급 여부나 기간, 부모의 근로시간, 그리고 지역사회의 빈곤율과 실업률 등의 가족 및 지역사회의 문화에 대한 변수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복지패널 자료는 이러한 변수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빈곤의 세대간 이전을 설명하는 이론적 모델들을 본격적으로 검증하는 실증적 연구를 수행할 수 없었다. 즉, 기본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인적자본투자모델의 논리를 지지하는 경험적 증거를 제시한다. 그러나 인적자본투자모델이 유전적 요인이나 사회화요인을 강조하는 모델들에 비하여 더 적합성을 갖는지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는다.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4) 집단별 및 코호트별 분석

여기에서는 빈곤의 세대간 이전 현상의 정도를 집단별로 그리고 코호트별로 비교 검토해 본다. 이를 위하여 각 집단 및 코호트별로 세대간 빈곤이행표 분석과 아동기 빈곤의 성인기 빈곤에 대한 로짓 분석을 실시해 보았다. 집단별 분석은 빈곤정의1(아동기 매우가난, 성인기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을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먼저 성별로 아들과 딸에 있어서의 빈곤의 세대간 이전 정도를 비교해 보았다. <표 10>에서 세대간 빈곤이행 분석표를 보면 아들의 경우 아동기 빈곤했던 경우 성인이 되어서도 빈곤한 경우가 10.9%인데 비해 딸들의 경우 그 비율이 21.6%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아들에 비해 딸들의 경우 부모와 자녀간의 빈곤의 세대간 이전 정도가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11>의 첫 번째 패널에서의 로짓 분석 결과를 보면, 첫 번째 칼럼의 교육연수를 포함하지 않은 로짓모델에서 아들의 경우 아동기 빈곤이 성인기 빈곤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딸의 경우에는 빈곤가정에서 성장한 경우 성인이 되어 빈곤할 가능성이 58.3% 만큼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로부터 아들의 경우에는 빈곤의 세대간 이전 현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칼럼에서 보이는 것처럼 아들의 경우에도 부모 빈곤(아동기 빈곤)은 교육연수를 1.7년 만큼 감소시키고 또 교육연수 1년 감소는 자녀가 성인기 빈곤을 경험할 가능성을 약 12%만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딸들의 경우에도 빈곤가정에서의 성장은 교육연수를 약 2년만큼 감소시키고 교육연수 1년 감소는 성인빈곤을 경험할 가능성을 약 11.3%만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아들과 딸 모두의 경우 교육연수를 포함한 로짓모델에서는 아동기 빈곤의 성인기 빈곤에 대한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별 분석 결과 아들과 딸 모두에 있어서 부모빈곤(아동기 빈곤)은 교육수준을 매개로 성인기 빈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딸의 경우 아들에 비해 빈곤가정에서 성장한 경우 교육에 대한 투자가 적어 빈곤의 세대간 이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표 10> 집단별 및 코호트별 부모와 자녀의 세대간 빈곤이행 분석표

			성인기 빈곤		
			비빈곤	빈곤	계
아동기 빈곤 (성별)	아들	비빈곤	93.5	6.5	100.0
		빈곤	89.1	10.9	100.0
	딸	비빈곤	92.6	7.4	100.0
		빈곤	78.4	21.6	100.0
아동기 빈곤 (지역별)	농촌	비빈곤	92.2	7.8	100.0
		빈곤	85.5	14.5	100.0
	도시	비빈곤	93.9	6.1	100.0
		빈곤	83.6	16.4	100.0
아동기 빈곤 (코호트별)	50대	비빈곤	89.8	10.2	100.0
		빈곤	82.0	18.0	100.0
	40대	비빈곤	92.7	7.3	100.0
		빈곤	85.5	14.5	100.0
	30대	비빈곤	95.0	5.0	100.0
		빈곤	89.2	10.8	100.0

주) 빈곤정의¹ 이용

* p<.05, ** p<.01, *** p<.001.

다음으로 지역별로 농촌 출신과 도시 출신 간에 빈곤의 세대간 이전 정도를 비교해 보았다. <표 10>의 두 번째 패널에서 출신지역별로 빈곤의 세대간 이행 분석표를 검토해 보면, 빈곤가정 출신자가 성인기에 빈곤한 비율이 농촌출신의 경우 14.5%인데 비해 도시출신의 경우 16.4%로 나타났다. 도시 출신의 경우 빈곤의 세대간 이전 정도가 약간 더 높았으나 그 정도가 아주 크지는 않은 것 같다. <표 11>의 두 번째 패널에서 교육연수 변수를 포함하지 않은 로짓분석에서 아동기 빈곤은 성인기에 빈곤을 경험할 가능성을 농촌의 경우 28.5%만큼 그리고 도시의 경우 68.7%만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표 11>의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칼럼에서 보이는 것처럼, 아동기 빈곤의 성인기 빈곤에 대한 영향은 직접적이기보다는 교육연수를 매개로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의 경우 아동빈곤은 교육연수를 1.6년 만큼 감소시키고 교육연수 1년은 성인빈곤가능성을 12%만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의 경우 아동빈곤은 교육연수를 약 2년만큼 감소시키고 교육연수 1년은 성인빈곤가능성을 약 11.5%만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출신지역별로 볼 때, 도시 출신의 경우 농촌 출신에 비해 빈곤의 세대간 이전 정도가 조금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촌과 도시 출신 모두 아동기 빈곤은 교육연수를 매개로 성인기 빈곤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1> 집단별 및 코호트별 아동기 빈곤의 성인기 빈곤에 대한 영향

		아동빈곤→ 성인빈곤 (교육연수제외 모델) (1)	아동빈곤→ 교육연수 (회귀분석) (2)	교육연수→ 성인빈곤 (교육연수포함 모델) (3)	아동빈곤→ 성인빈곤 (교육연수포함 모델) (4)
성별	아들	1.199	-1.706***	0.877***	0.933
	딸	1.583**	-1.986***	0.887***	1.260
지역별	농촌	1.285+	-1.616***	0.881***	1.029
	도시	1.687*	-1.947***	0.885***	1.312
코호트별	50대	1.448*	-2.131***	0.894***	1.140
	40대	1.113	-1.734***	0.867***	0.840
	30대	1.559	-0.740***	0.845***	1.337

+p<0.1, * p<.05, ** p<.01, *** p<.001.

주) 빈곤정의1 이용하였음. (1), (3), (4) 칼럼은 로짓분석에서의 odds ratio이고, (2) 칼럼은 회귀분석에서의 회귀계수임. 통제변수: 개인 성인기 현재 특성변수(성, 연령, 교육년수, 장애여부, 만성질환여부, 기혼여부)들에 아동기 환경 변수(아동기 부모사망경험여부, 아동기 부모이혼여부, 아동기 친척집에서 생활한 경험 여부, 부모로부터의 유산 및 증여 수급 여부, 아동기 성장지역)들을 통제변수로 포함.

마지막으로 코호트별로 50대, 40대, 그리고 30대에 있어서 빈곤의 세대간 이전 정도를 비교해 보았다. <표 10>의 세 번째 패널에서 코호트별로 빈곤의 세대간 이행 분석표를 검토해 보면, 50대의 경우 아동기 빈곤 경험자 중 18%가 빈곤을 경험한 한편, 40대의 경우 14.5%, 그리고 30대의 경우 10.8%가 성인기에도 빈곤에 머물렀던 것으로 나타나, 높은 연령대의 코호트의 경우 빈곤의 세습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50대의 경우에는 아동기에 빈곤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 중 성인기 빈곤자의 비율도 10.2%로 다른 코호트의 7.3%와 5%에 비해 더 높아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표 11>의 세 번째 패널에서 코호트별 분석을 한 결과 첫 번째 칼럼의 교육연수를 포함하지 않은 로짓모델에서는 아동빈곤의 성인빈곤에 대한 영향이 50대의 경우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40대와 30대 코호트의 경우에는 아동기빈곤이 성인기 빈곤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부터 네 번째 칼럼에서의 분석결과를 보면 50대의 경우 아동빈곤이 교육수준을 약 2.13년 만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빈곤의 교육연수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40대의 1.7년, 30대의 0.7년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연수 1년 증가에 따른 성인빈곤 가능성의 감소 정도는 50대의 경우 10.6%, 40대 13.3%, 그리고 30대 15.5%로 젊은 코호트에서 그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의 코호트별 분석결과를 정리해 보면, 대체로 50대의 경우 젊은 코호트에 비하여 부모 빈곤의 자녀 성인기 빈곤으로의 세습정도가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50대의 경우 부모 빈곤으로 인한 자녀의 교육에 대한 투자 부족이 빈곤의 세대간 이전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40대와 30대의 경우 50대에 비해 부모 빈곤이 자녀의 교육연수 차이에 미치는 영향은 현저히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교육연수 1년의 차이가 성인빈곤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는 더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연구결과는 앞으로 아동들에 대한 소득계층간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 1차자료를 이용하여 부모 빈곤과 자녀의 성인기 빈곤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개인의 교육연수를 제외한 로짓모델에서는 부모빈곤이 자녀의 성인기 빈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교육연수를 통제한 로짓모델에서는 부모빈곤이 자녀의 성인기 빈곤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빈곤은 자녀의 교육수준을 낮추고 자녀의 낮은 교육수준은 자녀의 성인기 빈곤 가능성을 현저하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의 분석결과 부모 빈곤은 자녀의 교육연수의 매개효과를 통하여 성인기 빈곤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매개효과는 집단별 및 코호트별 분석에서도 확인되었다. 집단별 분석에 있어서는 아들에 비해 딸의 경우, 농촌에 비해 도시의 경우, 그리고 젊은 세대에 비해 50대의 경우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을 매개로 한 빈곤의 세대간 이전 정도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빈곤의 세대간 이전에 대한 국내의 유일한 연구였던 김위정(2007)의 연구 결과에 문제를 제기한다. 김위정(2007)은 우리나라에서는 부모빈곤이 자녀의 성인기의 단기 빈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그러나 그 연구는 교육수준 변수를 포함한 모델만을 분석함으로써, 부모 빈곤의 교육수준을 매개로 한 자녀의 성인기 빈곤에 대한 영향 메커니즘을 간과하였다. 본 연구는 부모빈곤이 교육수준을 매개로 성인기 빈곤을 증가시킨다는 새로운 연구결과를 제시한데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는 서구와 달리 그동안의 경제적 발전과정에서 사회적 이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진 나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한 빈곤의 세대간 이전현상이 존재해 왔다는 것을 제시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부모빈곤이 교육연수로 측정된 인적자본축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이 인적자본축적의 부족으로 인하여 자녀가 성인기에 빈곤 상태를 탈출하지 못하는 교육의 매개효과가 큰 영향을 발휘했다는 것을 제시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이동성이 약화되고 경제적 지위의 세습이 악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사교육 등을 통한 교육수준의 세습과 이를 통한 경제적 지위의 세습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다. 본 연구에서의 코호트별 분석결과는 우리나라에서 부모빈곤으로 인한 절대적 교육연수(year of education) 차이는 감소해 왔지만, 교육연수의 작은 차이가 자녀의 성인기 빈곤에 미치는 영향은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앞으로 아동들간의 소득계층간 교육격차 완화에 대한 노력이 더욱 중요할 것임을 시사한다.

빈곤의 세대간 이전을 설명하는 이론적 모델들과 관련하여 본 연구의 결과는 기본적으로 인적자본 투자모델의 논리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제시한다. 그러나 유전적 요인이나 사회화 요인을 강조하는 모델 등 다른 모델들과의 설명력 비교를 위한 실증 분석으로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 복지패널에 다

른 모델들을 대변할 수 있는 적절한 변수들이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한국에서의 빈곤 세습을 설명하는데 있어 다른 모델들보다 인적자본투자모델이 더 적합하다는 주장을 전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앞으로 빈곤의 세대간 이전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이론적 모델들간의 적합성을 비교 분석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외에도 본 연구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주요한 것은 부모의 소득에 대한 직접적인 자료가 없어 자녀의 아동기 경제상태에 대한 회상 자료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부모의 빈곤 상태를 측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모 빈곤 상태 측정상의 측정 오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된다. 현재로서는 이 이외의 다른 자료가 없으므로 이 문제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향후 장기적인 패널자료의 구축과정을 통하여 부모의 소득에 대한 직접적인 자료의 획득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자료에 기반하여 향후 빈곤의 세대간 이전 양상의 진행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위정. 2007. “세대간 빈곤이행에 관한 탐색적 연구”. 2007년 한국사회학회 전기사회학대회 발표논문.
- 방하남·김기현. 2001. “변화와 세습: 한국 사회의 세대간 지위세습 및 성취구조”. 『한국사회학』 35(3) : 1-30.
- 신광영. 1994. “세대간 계급이동”. 『경제와 사회』 23: 82-116.
- 차종천. 1991. “남성 세대간 사회이동에 대한 상호연관모형 분석”. 『한국사회학』 25: 155-175.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 2006.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 Becker, G. and N. Tomes. 1986. “Human Capital and the Rise and Fall of Families”. *Journal of Labor Economics* 4(3): S1-39.
- Behrman, J. and P. Taubman. 1985. “Intergenerational Earnings Mobility in the United States: Some Estimates and a Test of Becker’s International Endowments Model”.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67: 144-51.
- Behrman, J. and P. Taubman. 1990. “The Intergenerational Correlation between Children’s Adult Earnings and Their Parents’ Income: Results from the Michigan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Review of Income and Wealth* 36: 115-27.
- Bladen, J. and S. Gibbons. 2006. *The Persistence of Poverty across Generations: A View from Two British Cohorts*. Bristol, UK: The Policy Press.
- Blau, P. and O. Duncan. 1967. *The American Occupational Structure*. New York: Wiley.
- Cocoran, M. and T. Adams. 1997. “Race, Sex, and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Poverty”. pp. 461-517. in *Consequences of Growing Up Poor*, edited by G. Duncan and J. Brooks-Gunn.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Cocoran, Mary(1995). Rags to Rags: Poverty and Mobility in the United States. *Annual Review of Sociology*, 21, 237-267.
- Hauser, R. and D. Featherman. 1977. *The Process of Stratification: Trends and Analyses*. New York: Academic Press.
- Haveman, R. and B. Wolfe. 1995. “The Determinants of Children’s Attainment: A Review of Methods

- and Finding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3(4): 1829-1878.
- Herrnstein, R. and C. Murray. 1994. *The Bell Curve: Intelligence and Class Structure in American Life*. New York: Free Press.
- Hill, M. and M. Ponza. 1983. "Poverty and Welfare Dependence across Generation". *Economic Outlook* 10: 61-64.
- Jencks, C. 1972. *Inequality: A Reassessment of the Effect of the Family and Schooling in America*. New York: Basic Books.
- Jenkins, S. and T. Siedler. 2007.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Poverty In Industrialized Countries". Chronic Poverty Research Center Working Paper 75. Essex, UK: Institute for Social Economic Research at University of Essex.
- Leibowitz, A. 1974. "Home Investment in Children". *Journal of Political Economics* 82(2): S111-131.
- Levy, Frank(1981). The Intergenerational Transfer of Poverty: Final Project Report. Urban Institute Working Paper 1241-02. Washington D.C.: The Urban Institute.
- Lewis, O. 1968. *La Vida: A Puerto Rican Family in the Culture of Poverty: San Juan and New York*. London: Panther Press.
- Mead, L. 1986. *Beyond entitlement: The Social Obligation of Citizenship*. New York: Free Press.
- Mead, L. 1994. "Poverty: How Little We Know". *Social Service Review* 94: 322-350.
- Peters, E. 1992. "Patterns of Intergenerational Mobility in Income and Earning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24: 456-466.
- Sewell, W. and R. Hauser. 1975. *Education, Occupation, and Earnings: Achievement in the Early Career*. New York: Academic Press.
- Solon, G. 1989. "Biases in the Estimation of Intergenerational Earnings Correlation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21, 172-174.
- Solon, G. 1992. "Intergenerational Income Mobility in the United States". *American Economic Review* 82: 393-408.
- Wilson, W. 1987. *The Truly Disadvantaged: The Inner City, the Underclass, and Public Policy*.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Zimmerman, D. 1992. "Regression towards Mediocrity in Economic Stature". *American Economic Review* 82: 409-429.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Poverty in Korea

Lee, Sang Eun
(Soongsil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poverty in Korea, using the first wave of Korea Welfare Panel Study. For this analysis, I produced poverty transition tables across generation and estimated logistic models to explore the effects of parent's poverty on the children's adulthood poverty. As the results, I found that parent's poverty reduced children's education level and then the low education level increased the likelihood that children experience poverty in their adulthood. In other words, parent's poverty might increase children's adulthood poverty through the mediating effects of education level. This mediating effects were also identified in the analyses by group and cohort. From the analyses by group, daughters rather than sons, those from urban rather than rural area, and the older cohort rather than younger cohort showed greater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poverty.

Key words: poverty,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child poverty, social mobility

[논문 접수일 : 08. 02. 06 게재 확정일 : 08. 03. 06]